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이 수행생활에서 부딪치는 의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신행의문에 명쾌한 해답

여시아문 '생활속의 불법수행' 출간

"대학원생 아들이 어느날 갑자기 휴학을 하더니 이제는 아예 자퇴를 하겠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부처님 말씀을 알려주며 애를 쓰고 있으나 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방마다 전선을 가설해 놓고 전등을 달아 놓지요.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가설돼 있습니다. 전선마다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내 마음의 불을 켜면 아들의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삶의 고비고비에서 부딪치는 문제들, 수행생활을 하다 얻게되는 갖가지 의문들을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의 답변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 주며 별로 정리한 <생활 속의 불법수행>(여시아문 刊)이 나왔다. 이 책은 불법수행을 매우 어렵게 여기거나 일상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려 향기로운 삶을

현대불교신문 연재

'길을 묻는 이에게' 묶어

4백여쪽 분량 5천원

가꾸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현대불교신문 장간호(1994. 10. 15)부터 제143호(1997. 9. 24)까지 지상에 연재했던 '길을 묻는 이에게'를 정리한 이 책은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불교 진리를 쉽게 설명했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수행하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자상하게 알려주고 있다.

구성은 '주인공이란' '믿고 놓아라' '교리와 수행 속의 생활' 등 모두 14개의 큰 주제 아래 평소 불자로서 수행하면서 느꼈던 궁금한 점과 이해하기 어려운 갖가지의 질문과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으로 꾸며져 있다. '불성을 깨닫고 싶어요' '신심이 부족합니다' 등 수행생활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고3 아들이 놀러만 다녀요' '제법 무언가 무슨 뜻입니까' '경상이란 무엇입니까' 등 생활과 교리,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3백80여개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생활과 불법수행이 둘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책은 IMF시대 증질지를 사용하고 직면당 원고수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등 거품을 모두 걷어내 400여쪽이 넘는 분량임에도 가격은 5천원으로 책정됐다.

한영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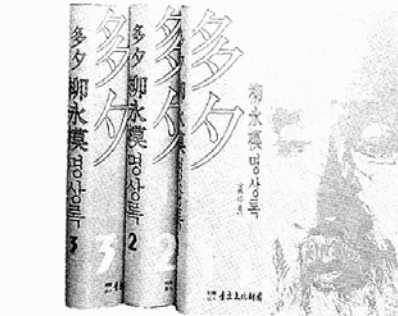
"사람구실 제대로 하려면 불교를 알아야 한다"

'다석 유명모 명상록' 3권 나와

1955년 5월11일, 다석 유명모선생은 일기에 '불질은 불구부정(不垢不淨)이요, 심정(心情)은 가구가정(可垢可淨)이다'고 적었다. '불질은 깨끗하고 더럽고 될 수 없으나 불질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뿐이며, 더러워진 마음은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수행이며, 끊는 것처럼 바른 길은 없다'는 의미로, 다석선생의 사상이 대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평생을 참을 찾아 실천한 진인(眞人)으로 평가받고 있는 다석(多石) 선생의 일기를 한데 모아 엮은 <유명모 명상록> 1·2·3(성천문화재단 刊)이 나왔다. 김리교신학대 김홍효교수가 1955년부터 1974년까지의 다석선생 일기를 풀이한 것으로 불교 기독교 유교 등을 고루 섭렵한 사상이 다석의 생각과 고뇌가 담겨져 있다.

이 일기는 모두 3천 수의 시조와 한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글 제목이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없는 것은 편의상 저자가 붙였다. 구성은 고어와 한문이 섞인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



을 곁들였다.

다석선생은 동서양의 고전을 읽기도하고 사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를 채웠다고 한다. 57년 1월14일 일기 '새벽이란 밝으려고 하지만 아직 밝지 못한 때이다. 사람도 깨달으려고 깊이 생각할 때는 금방 깨달을 것 같은데 못 깨닫고 해매는 것이 깨달기 전의 마음이다'만 보아도 다석선생의 정신적 경지를 느낄 수 있다.

다석선생은 서울 YMCA에서 <반야바라밀다심경>을 강의하면서 '불교는 그 역사가 2천5백년이나 되는 세계적인 사상이다. 우리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을 정도로 이 책에서는 곳곳에서 그의 불교관을 볼 수 있다. (우)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지	출판사
1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2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운수	민족사
3	성지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운순	신우당
4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일타	대원정사
5	한문(한글)에 쓰여진 이야기	진현종	혜음
6	무소유	법정	범우사
7	수행으로 가는 길	이제열	대원정사
8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행과연행	반출판사
9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10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구입문의: (02)737-0695

대둔사 개산 1450년 역사 담은 '대둔사지' 4권 발간

대둔사 개산 1450여년의 역사를 담은 <대둔사지>가 발간됐다. 창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물, 유물 등 대둔사의 모든 것을 자세적으로 수집하고 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1에는 대둔사 맥(脈)의 유래와 12종사 등 인물들, 권2에는 사암 총담 제영(題詠) 등이, 권3에는 유서(遺書) 유기(遺器) 등이, 권4에는 신라승 무류선사 등 역사적 인물과 사찰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시대별 불교의 특징이 서술돼 있다.

<대둔사지>는 불교의 역사와 문화 예술 사상을 전하는 중요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둔사지간행위원회와 강진문화연구회가 공동으로 간행했다.

동지속의 대화 효종스님 지음

이웃들의 가슴아픈 이야기 30여편



부산 바라밀포교원 원장 효종스님이 간병인 활동을 하며 직접 경험한 내용을 간추려 엮었다. "스님, 김씨네가 집을 팔아야 할 형편이랍니다. 차라리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처자식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상을 떠난 농부 김종수씨(가명)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열불발머니 청정행보살에 이르기까지 30편의 가슴아픈 이야기를 담으며 효종스님은 "육신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날개 잃은 새들을 위해 잠상자락을 다시 들어 매고 합치게 뛰어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 (부다가야 6천6백원)

화제의 책

만다라를 통한... 수잔핀처 지음

심리분석적 만다라 치료사례 소개



만다라는 우주 만물의 조화와 연관성 및 차별성을 부처님 묘상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흔히 기하학적 구조로 그려진 불보살의 그림(탱화·불화)을 만다라라고 부르며, 깨달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저자는 만다라를 통한 심리치료로서의 미술치료에 관한 내용을 만다라의 역사와 더불어 치유성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만다라는 바로 자기자신을 나타낸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만다라 속에 나타난 색깔, 숫자, 형태, 세나 꽃과 같은 소재들의 상징성을 통해 만다라를 그린 사람의 심리를 분석·이해하고 치료에 성공한 사례를 제시했다. <학지사 8천원>

새로 나온 책

▲**심지동경=예불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가.** 불교교리와 예법을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선(禪)수행의 요점과 참선하는 법, 달마조사의 오분향 해설, 황벽선사의 교훈 일구(一勾), 부처님의 교화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혜통스님이 한데 묶었다. <전원문화사 1만2천원>

▲**선인들의 공부법=공부는 특별한 것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향상시키고, 세상을 밝히며, 인간과 우주의 도를 깨달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자 장자 주자 이이 이황 홍대용 박지원 등 16명의 선인이 공부에 관해 남긴 훌륭한 말을 모았다. <창작과비평사 8천5백원>

▲**한국인의 종교경험 무교(巫敎)=종교인들의 지금까지의 삶에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의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비일상적인 종교 경험뿐만 아니라 종교와 관련된 일상적인 경험들을 다루고 있다.** <서광사 9천5백원>

'농사짓는 변호사 경주에 살다'

변호사 신평씨 자전적 수필집 기독교서 불교귀의 이유 밝혀

전직 판사에서 지금은 변호사이자 농사꾼. 기독교인에서 신심 돈독한 불자로의 변신. 신평(43세)씨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경주에서의 삶의 이모저모를 엮은 <농사짓는 변호사 경주에 살다>를 내놓았다.

93년 신평씨는 모 시사주간지에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기고문을 발표하면서 현행헌법 최초로 법관제임용 탈락처분이라는 시련을 겪었다. 그렇지만 건강악화와 삶의 궁극적 의미를 찾아 헤매이던 그의 영혼은 자신이 의지하던 하나님에게서조차 할 곳을 찾지 못하던 차였다.

제1부 '경주에 살으리랴다'에서 신평씨는 '분황사 시절'과 '나와 불교'라는 주제아래 자신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이유와 불교관을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를 신앙하면서도 설명하기 힘든 아쉬움은 늘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이때 우연히 만난 대홍사 은보스님으로부터 크게 깨우쳐 불교에 귀의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삶에서 녹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한다.

2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와 3부 '판사와 오관'에서 열여덟 개 있는 작은 이야기들은 신평씨의 날카로운 시각과 잔잔한 문장으로 사람과 사회에 대한 아픔과 희망을 비추고 있다.

신평씨는 현재 경주 남산의 한 자락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변호사일과 함께 경주학술포럼이사장과 장학단체인 마평장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문화상품권' 판매

책방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이 3월16일부터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 '문화상품권'은 영화 연극 전시회 및 공연 관람뿐만 아니라 CD LP 구입과 비

디오 구입 및 대여까지 단 한장의 상품권으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 종합상품권으로 1매당 5천원이다. 5천원권이 이어 1만 원권 5만원권과 소비자의 욕구대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프리페이드 카드'(Prepaid Card)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02)737-0695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스님 법어집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스님. 일타스님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I.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II.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III. 배물여 살자 / IV. 밝은 삶을 여는 계율 / V.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VI. 횡두 드는 법 / VII. 아하반야바라밀

* 일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고된 삶의 감로수 같은 일타스님의 책모음

-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86 / 3,500원
- **祈禱(기도)** 일타스님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스님 주편의 운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교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연부구의 <지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5,000원
- **범공양문**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5,000원
-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법(無畏)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감로법문** 들는 것만으로도 한희성이 생기는 일타스님의 육상법문 테이프 육상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동선요리** 전화: (02) 587-6612·582-6612 팩스: (02) 586-9078